

# “진실의 건축’ 주된 재료는 독서와 사유”



## 1 건축가 승효상

“건축은 절박함”이라고 말하는 이가 있다. 단순한 집짓기가 아니라는 의미다. 건축이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치열하게 고민하고 성찰한다는 반응이기도 하다.

건축가 승효상(61). 그는 한국을 대표하는 건축가 중 한 사람이다. 노무현 대통령 묘역을 설계했고 파주 출판단지가 그의 손을 거쳤다. 2011년 광주디자인비엔날레 총감독을 역임하기도 했다.

그는 자신의 건축을 ‘빈자의 미학’이라고 말한다. “가난해질 수 있는, 가난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정신”을 근간으로 한다.

“부모님이 6·25때 월남해 부산에 정착했어요. 여덟 세에 광주에서 우물과 화장실 하나를 공동으로 사용했어요. 아침마다 북새통을 이루었지만 웃음소리로 가득 찬 곳이었습니니다. 돌아보면 불편하기 짝이 없지만 살아 있다는 느낌이 드는 공간이었어요.”

그는 한국의 대표적인 건축가 김수근(1931~1986)의 제자다. 김수근 선생은 그가 남을 수 없는 거대한 산이었다. 승효상은 김수근에게서 건축하는 이의 자세와 삶을 배웠다. 스승의 엄한 가르침은 논리적, 미학적인 향상과 건축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성찰로 이어졌다.

“2011년 광주디자인비엔날레 이후로 광주 사람을 만나면 반갑기 그지없습니니다. 당시엔 이가 빠질 정도로 힘든 과정이었지만 저의 주변을 확장시키는데 특별한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그와의 인터뷰는 최근에 그의 사무실 이로제(麗露齋)에서 이루어졌다. 1층 한쪽에 놓인 책장은 여러 종류의 책으로 가득했다. 그의 건축에서 인문학적 사유가 느껴지는 이유다. 그는 광주 아시아문화전당 설계 공모전에서 2위를 한 경력이 있다. “광주가 군사독재에 항거한



건축가 승효상의 서재에는 여러 종류의 책이 잘 정리돼 있다. 그의 건축에서 인문학적 사유가 느껴지는 이유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 건축의 아름다움은 비움... ‘빈자의 미학’ 추구

### 성경·조선미술사논총·공간의 시학 등 영향

도시답게 모든 시설이 주변의 풍경과 민주적인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말에서 예전의 단면이 읽힌다.

“비움의 미학”은 승효상 건축의 또다른 정체성이다. 채우는 것이 중요한 시대에 비움이라니. 콘텐츠가 중요한 시대가 아닌가. 채워야 하고 담아내야 인정받고 지경이 넓혀지는 세상일 터인데, 자꾸만 비우란다.

“비움”이란 용어는 서양의 현대건축에서 새로운 시대 새로운 건축의 키워드가 되었지만, 이는 본디 우리 선조들의 상용어자 우리의 옛 도시와 건축의 바탕이었습니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우리에게 비움은 추방해야 할 구악이

되었고, 채우기에 몰두한 나머지, 우리 도시는 무질서한 공간으로 바뀌고 말았어요. 그로인해 우리의 삶과 공동체는 서서히 붕괴되고 있는 것 아닐까요.”

“빈자” ‘비움’ 을 아우르는 본질은 ‘진실’이다. 진실의 건축은 빈자의 미학과 비움의 미학을 포괄한다. 그렇다면 진실의 건축 주된 재료는 무엇일까. 단언하건데 독서와 사유다.

승효상은 가장 많이 영향을 받은 책으로 성경을 꼽는다. 올해도 신년 초에 신약을 통독했다. 매년 초가 되면 신약을 읽고 하반기엔 구약을 읽는다. 요한복음은 읽을 때마다 그에게 색다른 영감을 준다.

고유섭의 ‘조선미술사논총’도 그의 건축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식민지 시대 유일한 미술사 학자였던 고유섭은 사회경제사학, 정신사적 미술사 방법론 등을 두루 취합했다. 해박한 지식과 다양한 방법론을 적용, 미술사학의 기초를 세웠을 뿐 아니라 한국의 건축과 회화 미술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켰다는 평가를 받는다.

가스통 바슐라르의 ‘공간의 시학’도 빼놓을 수 없는 책이다. 다양한 공간과 그 공간이 지니는 이미지가 상상력을 통해 구현되는 과정을 규명한다. 승효상은 “자신의 말은 어눌하기 짝이 없지만 그럼에도 언어 선택에 신중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의 건축이 다양한 독서와 깊은 사유에서 비롯되었음을 뜻한다. 건축가는 다른 이의 삶을 조직해야 하는 공간을 다루기에 무엇보다 인생을 알아야 하며 그것의 첨병은 독서란다. 그의 건축에서 인문학적 향기가 느껴지는 것은 아마 그 때문이다.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 박진현의 문화카레

지난 2011년 1월, 뉴욕 타임스와 워싱턴 포스트는 광주의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과 유사한 홍콩서구동 문화지구(West Kowloon Cultural District-WKCD)를 주요뉴스로 다뤘다. 이들은 세계적인 큐레이터 라스 니티브(59·영국 테이트모던 초대관장)가 홍콩 서구동문화지구의 M+현대미술관 디렉터로 임명됐다는 뉴스를 전하면서 WKCD를 집중보도했다. 국제 미술계의 거물인 니티브가 유럽이 나 미국이 아닌, 홍콩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했다는 건 그 자체

주에도 뵈기에 출신의 프리 라이젠(62)이라는 걸출한 공연예술 감독이 있었다. 지난해 3월 문화관광부는 국제공모를 거쳐 전담의 아시아예술극장 감독으로 라이젠을 임명했다. 당시 그녀는 기자회견에서 “예술적 성취도를 끌어올릴 수 있는 대규모 프로젝트를 맡게 돼 영광이다. 아시아의 역사, 정치적 상황 등을 더 열심히 공부하겠다”며 강한 의욕을 내비쳤다. 하지만, 무슨 영문인지 6개월 만에 중도하차해 아쉬움을 주었다. 문광부가 밝힌 사별 이유는 ‘건장’이었지만 그녀는 열

## 프리 라이젠이 광주를 떠난 까닭은?

〈전 아시아예술극장 감독〉

만으로 빅뉴스였기 때문이다.

특히 WKCD의 콘텐츠와 인적 구성은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 그도 그럴 것이 마이클 린치(전 시드니오페라 하우스 대표)와 루이스 유(프로듀서), 니티브 등 ‘한자리에 모시기 힘든’ 월드스타들을 대거 영입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홍콩정부는 ‘도시 속의 문화공원’이라는 컨셉아래 2016년부터 순차적으로 개관하는 M+미술관, 중국오페라 극장 등 WKCD 주요시설들의 콘텐츠 개발에 몰입하고 있다. 일찌감치 니티브를 전담감독으로 선임한 것도 바로 ‘아시아의 현대미술관’을 내건 M+미술관의 컬렉션과 콘텐츠를 개발하기 위해서다.

개관을 불과 2년여 앞둔 국립아시아 문화전당(이하 전당) 콘텐츠에 비상이 걸렸다. ‘똥구름’ 같은 전당의 난해한 컨셉도 그렇거니와 콘텐츠를 기획하는 예술 감독이 없기 때문이다. 물론 광

마 후 오스트리아 빈 페스티벌 예술감독으로 자리를 옮겼다.

그런 그녀가 최근 6일간의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해 10여 편의 공연을 관람했다. 한 중앙일간지와 인터넷에서 라이젠은 아시아 예술극장의 중도하차를 묻는 질문에 “개관작품을 위해 국내외 전문가를 초빙해 마스터 플랜을 세워놓고 보니 ‘감당’ 할 자신이 없었다”고 말했다. “건강이 좋지 않다면 ‘그녀는 약 1시간 반의 인터뷰 내내 에스프레소 더블커피를 석 잔이나 마시고 담배를 입에서 놓지 않았다고 한다.”

라이젠이 광주를 떠난 진짜 이유를 알 수는 없다. 하지만, 라이젠이 현재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다 ‘마스터플랜’에 대한 자신이 없어 그만뒀다고 하니 괜지 쓸쓸하다. 전당의 ‘추상적’이고 모호한 컨셉이 그녀의 의욕을 꺾어 버린 것 같아서 말이다.

〈편집부작업 겸 문화선임기자〉

## 호남예술제 성악 초등부 입상자

〈심사위원〉  
김철웅(목포대 교수)  
윤영민(동신여고 교사)  
홍승연(광주교육대 교수)  
김영지(초당대 교수)  
조규철(전남대 교수)

◇ 초등부 1, 2학년  
▲ 최고상  
33 김석현(만호 1)  
▲ 금상  
19 최보람(살레시오 2)  
21 정가현(문정 2)  
▲ 은상  
22 최정원(우리 2)  
27 한신재(살레시오 1)

37 강민서(광주남 2)  
39 전시은(문우 2)  
▲ 동상  
1 노정인(불로 2)  
4 김은선(장덕 2)  
7 황지유(선창 2)  
13 최윤채(우리 2)  
17 정준우(우리 2)  
23 임정민(광주송원 2)

41 정여진(광주송원 2)

◇ 초등부 3, 4학년  
▲ 최고상  
35 조수양(조봉 4)  
▲ 금상  
21 주예진(우리 3)  
22 전건우(불로 4)  
27 김하윤(신암 3)  
48 이은서(용봉 4)  
▲ 은상  
3 조유민(신암 3)

11 박규남(화계 3)  
16 박서영(신암 4)  
58 오주원(목포영산 3)  
64 박소영(광주교대 광주부설 3)  
66 김규림(살레시오 3)  
67 강주은(여수양지 4)  
▲ 동상  
1 유보영(삼육 3)  
7 김다윤(우리 4)  
10 김창우(연계 4)  
12 박나영(선창 4)

13 김도연(광주송원 3)  
25 이시목(살레시오 3)  
33 범시은(문우 3)  
38 임수빈(살레시오 3)  
44 정지윤(광주송원 4)  
46 김혜나(문정 4)  
49 송창용(살레시오 3)  
57 김혜민(문흥중앙 4)  
63 이채원(광주남3)  
65 이연우(광주송원 4)  
68 박소현(무안남약 3)

◇ 초등부 5, 6학년  
▲ 최고상  
22 김태윤(광주송원 6)  
▲ 금상  
5 김시은(효덕 5)  
23 박효진(살레시오 5)  
▲ 은상  
3 서진선(여수양지 5)  
13 임예지(목포한빛 6)  
14 신혜림(여수양지 5)  
26 김성훈(광양 5)  
29 신승아(삼육 6)

30 이선우(정암 5)  
▲ 동상  
7 이수아(광주송원 5)  
16 이민현(불로 6)  
18 이현서(금부 6)  
20 오예열(동림 5)  
24 조수영(화계 6)  
28 조영훈(광주송원 6)  
31 조수현(문정 5)  
32 이상민(광주송원 6)  
33 박예찬(광주백일 6)

## 새로운 패러다임의 거침없는 뉴스쇼



월~금 밤 9시 50분 방송



대한민국 어디서나 채널 19번 TV조선

박은주 조선일보 문화부장

최희준 TV조선 취재에디터

김미선 TV조선 정치부 기자